

급속 진행성 사구체신염의 임상상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황은아 · 김정은 · 윤정수 · 진규복 · 박진호 · 성정훈 · 한승업 · 박성배 · 김현철

목 적 : 급속 진행성 사구체신염 (RPGN)은 임상적으로 수개월 이내에 말기신부전으로 진행하며 병리 조직학적으로는 50%이상의 사구체에 광범위한 만월상을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신질환이다.

방 법 : 1985년 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20년간 계명대 동산병원에서 신생검을 통해 RPGN을 진단받은 41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경과 및 예후에 대해 후향적으로 조사하였다.

결 과 : 연구기간 동안 총 2,059명의 환자가 경피적 신생검을 시행받았고 그 중 41명 (2%)이 RPGN을 진단받았다. 이들 환자의 평균 연령은 42.6 ± 20.6 세 (최단 11세, 최장 75세), 남녀비는 20 : 21, 평균 추적기간은 43.8 ± 58.4 개월 (중간값 19개월)이었다. 내원시 임상 증상은 부종 71%, 핏뇨 66%, 고혈압 49%, 상기도 감염 46%, 육안적 혈뇨 24% 순이었다. 평균 혈색소치는 8.8 ± 2.0 g/dL, 1일 요단백 배설량이 5.0 ± 3.9 g/일, 혈청 크레아티닌치가 7.0 ± 4.3 mg/dL였다. RPGN의 원인 질환으로는 면역복합체 침착이 없는 질환이 21예 (51.2%), 면역복합체 질환이 20예 (48.8%) 있었으며 항기저막 항체 질환은 한 예도 없었다. 면역복합체 침착이 없는 질환 중에는 ANCA 연관 사구체 신염이 8예로 가장 많았으며 Wegener 육아종 4예, 현미경적 다발성 혈관염 2예, 특발성 7예였다. 면역복합체 질환에서는 루푸스 신염이 7예로 가장 많았으며, Ig A 신증이 4예, 감염 후 사구체 신염, Henoch-Schönlein 자반증 및 막증식성 사구체 신염이 각각 3예씩 있었다. 치료로는 스테로이드 단독치료가 22예 (53.7%), 스테로이드 및 면역억제제 병합요법이 8예 (19.5%, 이중 2예가 혈장교환을 병행), 스테로이드 및 혈장교환 2예 (4.9%)였으며 9예 (21.9%)는 보존적 치료를 받았다. 평균 43.8개월의 추적기간 동안 5예 (12.2%)가 신기능을 완전히 회복하였으며, 23예 (56.1%)가 말기신부전, 6예 (14.6%)가 신기능부전을 보였다. 7예 (17.1%)가 입원 중 사망하였는데 그 원인으로 패혈증 4예, 뇌출혈 2예, 폐렴 1예, Wegener 육아종에 의한 심한 폐출혈이 1예 있었다. 신부전이 진행한 군에서 진단 당시 혈청 크레아티닌치, 1일 요단백 배설량이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결 론 : RPGN은 전체 사구체신염의 2%를 차지하는 비교적 드문 질환이나 조기 진단이 어렵고, 진단 시기가 늦어질 경우 대부분이 말기신부전으로 진행되는 매우 예후가 불량한 신질환이다. 따라서 원인 불명의 급격한 신기능 저하를 보이는 환자에서 적극적으로 신생검을 통한 조기 진단과 적극적인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생각한다.